

오늘의 유머

■놀부의 시계

놀부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지, 지옥으로 갔지 정하는 곳에 이르렀다. 놀부가 주변을 돌아보니 여자가 시계가 많이 보여 안내원에게 물어보았다. "여긴 왜 이렇게 시계가 많죠?" "저 시계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 수록 빨라지는 시계입니다."

■거지의 주장

늘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어느 날 지나가던 신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재작년까지 내게 늘 만원씩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5천 원으로 줄더니 올해엔 또 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니까?" 그러자 신사가 대답했다. "전에는 내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었지요. 하지만 작년에는 결혼을 해서 5천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애가 태어나서 천원밖에 못 드립니다"

■형님 앵무새

한 남자가 앵무새를 사려고 애완 동물 가게에 갔다. 주인은 요즘 인기 있는 앵무새라며 세 마리를 보여주었다. "여기, 이놈은 5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컴퓨터를 다룰 줄 알거든요."

"그건 200만원입니다." "실력이 엄청났군요?" "글쎄요. 솔직히 저도 저 녀석이 될지는 못했어요."

■남편의 소원

남편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노부부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일파티 도중 한 요정이 부부 앞에 나타나 말했다.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인의 소원은 뭐죠?"

대답이 끝나자마자 '펑' 소리와 함께 남편은 90살이 됐다.

■아빠의 이름

자정이 훨씬 넘어 경찰이 야간순찰을 하는데 잠못바람의 꼬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앞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꼬마에게 물었다. "애, 너 여기서 뭐하니?"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나와있는 거예요.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택시요금

시골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다. 요금에 5천원 나왔지만 할아버지가 요금을 3천100원만 주자 당황한 택시기가사 말했다. "할아버지 요금은 5천원입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 2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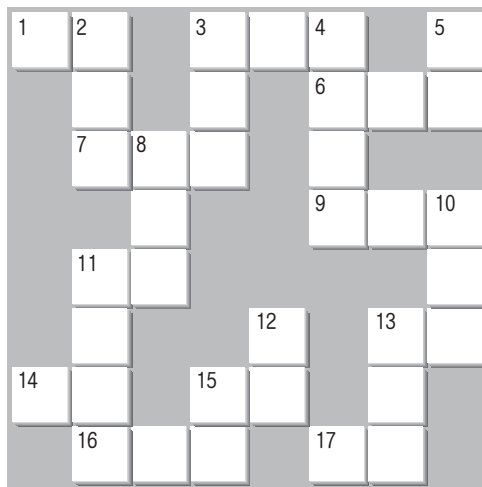
→ 가로 풀이

1. 병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의사의 ~에 따라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다. 3.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6.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그는 영화를 좋아해 직장도 그만둔 영화 ~다. 7. 극이나 오페라의 막간(幕間)에 연주하는 가벼운 음악. 또는 그 곡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는 독립된 소곡. →인테르메조. 9.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성 두통. 주로 머리만 심하게 아프며 주기성을 나타낸다. 11.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 이집은 ~가 1억원 정도 된다. 13. 권세나 정권을 잡음. 야당은 차기 ~를 노리고 있다. 14. 실제로 얻은 이익. 그는 명분보다 ~를 추구한다. 15. 주로 실내에 두고 감상하는 것으로 생긴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이 묘한 아름다운 천연석을 이르는 말. 16. 예전에 두만강 일대의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를 토벌하다. 17. 물고기 주식 등의 시체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름. 주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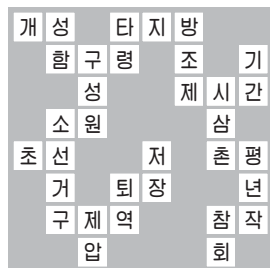
니 등이 묘한 아름다운 천연석을 이르는 말. 16. 예전에 두만강 일대의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를 토벌하다. 17. 물고기 주식 등의 시체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름. 주가 ~.

↓ 세로 풀이

2. 곡식을 찧거나 찧는 곳. 명절이 가까워 오자 ~은 사람들로 붐볐다. →정미소. 3. 두 가지 이상의 약기로 동시에 연주하도록 작곡한 곡.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 4.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5. 계집아이. 그녀는 건강한 ~을 분만했다. →남아. 8. 상업시설이 많은 곳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들이 많이 모인 곳을 이르는 말. 10.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을 행



사하다. 11. 주로 영화의 대본을 이르는 외래어. 12.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 네모지거나 둥글며, 주로 밑이 배기거나 바닥이 찰 때 쓴다. 손님에게 ~를 내드려라. 13. 야간에 물고기를 잡을 때 어류를 모여들게 하려고 배에 켜는 등불. 불빛을 따라 모여드는 물고기의 성질을 이용해 고등어, 오징어, 정어리 등을 잡는 데 사용. 15. 개의 수컷.



<함께 풀어봅시다 290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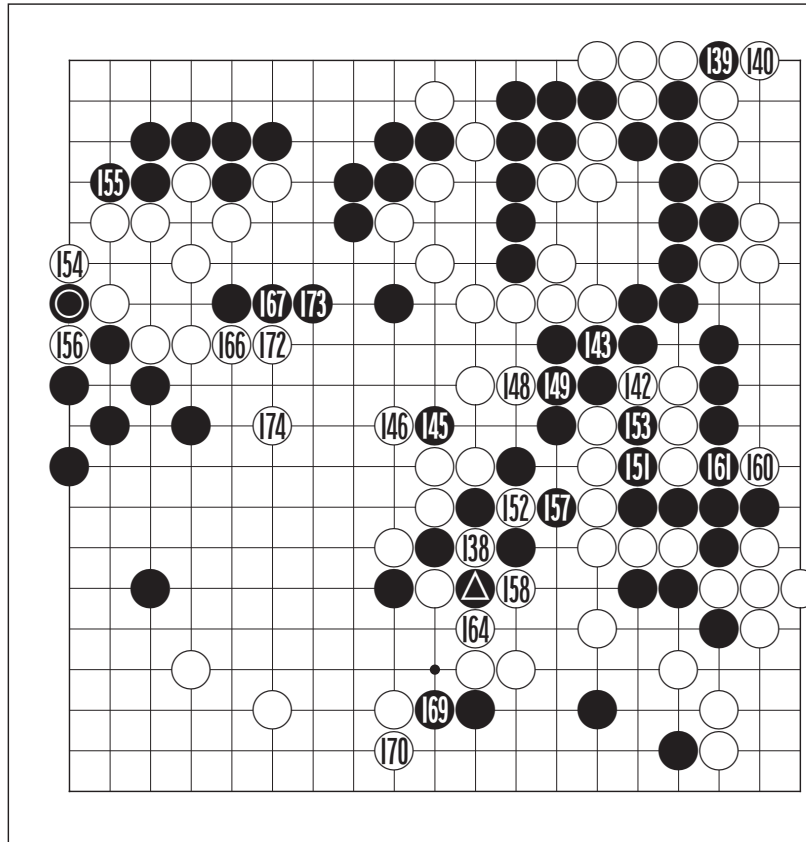
서보라·광주시 남구 백운 2동 김은하·여수시 문수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재부



광주 기우회

대항전

승리 결정지는 꽃놀이 때 9보(138~174)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 黑 김종길 5단 (광유회)

김종길 5단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흑 ▲로 두어 패로 버텨본다. 그러나 이 패는 백으로서 꽃놀이 때, 흑은 초대마가 걸려있어 자체패가 아니면 듣지않는데 반해 백은 적당하게 타협만 해도 승리가 굳어지게 된다. 결국 흑 151로 패를 써왔을 때 불청하고 백 152로 때려내 패를 해소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떠한가. 흑이 백 너집을 잡고 대마를 살려내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하변을 송두리째 백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순간 승부도 결정되고 말았다. 백으로서

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대로 되었던 것이다. 선수를 뽑은 기용성 5단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백 154로 막아 좌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곳만 정리된다면 흑도 더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다. 김종길 5단 안간힘을 다해 서 흑 155로 막아 두집을 내줄수는 없다고 외쳐본다. 그러나 기용성 5단 몇번 패를 해보다가 174까지 진출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항서를 쓴다. 141, 147-138의 왼쪽 패파반. 144, 150-138, 159,165171-●. 162, 168-156.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목진석 먼저 웃었다

목진석 9단이 제9회 맥스커피배 입선회강전 결승 첫판을 승리로 장식하며 우승에 한 발 다가갔다. 목진석은 지난 1일 태국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 1국에서 박영훈 9단을 상대로 248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 지난해 다승왕에 오르고, 바둑대상 감투상을 수상한 목진석은 올해 이창호·이세돌 9단에 내리 패하면서 추중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이 대회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10분에 30초, 초읽기 3회이다. 결승은 3번의 대결을 펼치고, 2국은 오는 8일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3일(음 1월 26일 壬寅)

- 36년생 고역은 없으니 마음 놓고 지내라. 48년생 서로 경쟁하듯 나가니 흥하고 깊은 집다. 60년생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는 있다. 72년생 특보다는 상이 많고 흥이 발생한다. 84년생 시비를 따지는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3, 41
37년생 급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온다. 49년생 길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진 듯하나 결과는 미미하다. 61년생 마무리를 잘하면 큰 득은 있다. 73년생 절대로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85년생 백사가 불성하니 신중을 기라하고 기다려라. 행운의 숫자: 20, 39
38년생 새로운 희망의 실개개 있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50년생 새로운 사업 구상을 계의 받고 조직이 생긴다. 62년생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협력자를 돌아보라. 74년생 여행을 삼가하고 실천으로 보여줘라. 행운의 숫자: 19, 31
39년생 될 듯 될 듯한 구상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다. 51년생 남של은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처신하라. 63년생 대문 안과 밖을 살펴보면 失物을 예방한다. 75년생 가정의 안정이 있고 식구에게 길사가 있다. 행운의 숫자: 06, 28
40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길이 있다. 64년생 이는 도깨비 발등 찍히나 경기망동하지마라. 76년생 장기간 음지에서 벗어난 기쁨이 다가 올다. 행운의 숫자: 15, 33
41년생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53년생 신중함이 있어 야 하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길하리라. 65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77년생 추진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8, 32
42년생 화는 많고 길한 일은 적으니 변화를 자제하라. 54년생 부부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내라. 66년생 적은 돈의 소비가 있다. 78년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행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24, 27
43년생 길사는 적고 흉사가 많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5년생 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면 대운은 없다. 67년생 자신의 일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라. 79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23, 43
44년생 새로운 소식은 있으나 서둘지 마라. 56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지막 더한 조심도 같이 해야. 68년생 배인 편에 예사가 발생 할 수도. 80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해수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2, 43
45년생 앞으로의 불행한 일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57년생 길 이 담당하고 안보이나 송풍은 쓰인다. 69년생 직장의 흐름을 읽어보라. 81년생 자녀문제가 발생하니 주변을 잘 살펴야. 행운의 숫자: 10, 42
46년생 식구가 줄 수도 있다. 58년생 내용으로는 통한 듯 하나 일고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70년생 의욕적인 추진은 있으나 제자리걸음이다. 82년생 길은 미러하지만 내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6, 22
47년생 집안간 지식이 돌아온 형상이나 결과는 허망할 수도 있다. 59년생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배가 되어 당하리라. 71년생 생 修行 길은 불행하고 낯설다. 83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2, 4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문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08> / 오하오우 니혼고 <1108> / 니하오 쑹구위 <85> / 한자 이야기 <695>

Have you ever eaten frog legs?
개구리다리 요리 먹어보셨어요?
A: Have you ever eaten frog legs?
B: Yah, they're pretty good.
A: What do they taste like?
B: They kind of taste like chicken.
A: 개구리다리 요리 먹어보셨어요?
B: 그렇죠, 아주 맛있어요.
A: 맛은 어떤가요?
B: 닭고기 하고 비슷해요.
\* taste like ~ : ~한 맛이 나다
\* www.tesolamerica.com에 가 보셨습니까?
= Have you ever visited the website 'www.tesolamerica.com'?
\* 스키 타 본 적이 있습니까?
= Have you ever been skiing?

いつまで續(つづ)くんでしょね。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A: この不景氣(ふけいき)は、いつまで續(つづ)くんでしょね。
B: 株(かぶ)の取引(とりひ)きも低迷(たいてい)していますし先行(さきゆき)が不安(ふあん)ですね。
A: ええ、テロ事件(じけん)以後(いご)もっと不安(ふあん)になりましたからね。
B: 不安材料(ふあんざいりょう)が多(おほ)すぎて豫想(よそう)がつきませんね。
A: 이 불경기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B: 주식 거래도 활발치 않고 장래 상황도 불안합니다.
A: 예에, 테러사건 이후 더욱 불안해졌으니까요.
B: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先行(さきゆき): 장래, 앞 시세
株(かぶ): 주식
テロ事件(じけん): 테러사건

今天我講客
오늘은 내가 살게
A: 今天我講客。
jīntiān wǒ jiǎngkè
전미제강객
B: 你有什么好事?
nǐ yǒu shénme hǎoshì?
니 유무 선뎀 환우 선
A: 我找到工作了。
wǒ zhǎodào gōngzuò le
외 찾오따로 공우오려
B: 恭喜你。
gōngxǐ nǐ.
공사 니
A: 오늘은 내가 살게.
B: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A: 나 직장 구했거든
B: 축하해
講客 [jiǎngkè] 발표 살다
恭喜 [gōngxǐ] 축하하냐

吉祥(길상)
길할 길, 복상
길상(吉祥)은 운수(運數)가 좋은 조짐(兆朕), 또는 경사(慶事)스러운 조짐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행복(幸福) 또는 기쁨의 의미로도 통용된다. 길(吉)에는 '복되다'는 뜻이 있어 손이 들지 않은 날을 '길일'(吉日), 착한 사람을 길인(吉人)이라고도 한다. 상(祥)은 길(吉)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조짐'이라는 뜻이 강조된다.
길상은 사찰이나 암자이름에서 자주 접한다. 이유는 부처님 중 아름다운 모습에 천의(天衣)를 입고 보관(寶冠)을 쓰고 여의주를 손에 잡고 있는 부처를 길상천녀(吉祥天女), 혹은 길상천(吉祥天)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에게 복덕(福德)을 주는 부처이기 때문일 것이다.
'길상'은 또 사극(史劇)의 등장인물 이름으로도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밥그릇과 수저, 노리개 등에도 길상문(吉祥紋)이 새겨져 있어 소유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방공에서 자주 보는 십장생도(十長生圖), 일월산수도(日月山水圖), 모란도(牡丹圖), 송학도(松鶴圖) 등도 모두 길상도(吉祥圖)의 구체적인 이미지들이다. 이 봄에 길상문이나 길상도를 신변에 두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긴요할 듯하다.